

## 제6과 연습문제 풀이

D06.01 아래의 문장들을 한국어로 옮기시오.

D06.01(01) tatkālam asti nr̥po nalo nāma nagare.

그 때에 “날라”라는 이름의 왕이 도시에 있었다

D06.01(02) niśāyām eva puruṣā vane na caranti.

사람들은 밤에는 숲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D06.01(03) nalo nr̥po 'pi vedāñ jānāti.

날라는 왕이지만 베다들을 안다.

D06.01(04) kim iti yūyaṃ daṇḍenāsmāṃs tudatha?

왜 너희들은 우리들을 막대기로 때리는가?

D06.01(05) he bāla nama tavācāryāyeti vācaṃ śiṣyo dūrād bālaṃ bhāṣate.

“오 소년아, 너의 스승에게 인사를 해라!”라는 말을 학생이 멀리에서 소년에게 한다.

D06.01(06) vanaṃ mā gaccheti paṇḍitasya vacanaṃ prati vīro bhavatv iti prativadati sma.

“숲으로 가지 말라!”는 현자의 말에 대해 전사는 “예!”라고 대답했다.

D06.01(07) apīndro vṛtraṃ hantīti marut sarvavidam̐ pṛcchati sma.

“인드라가 브리뜨라를 죽이는가?”라고 (바람의 신) 마룬이 모든 것을 아는 자에게 물었다.

D06.01(08) mama putra tava putro gr̥he vedān pathatu yajñe devebhyo namatu ca.

내 아들이, 너의 아들이 (즉, 말하는 이의 손자가) 집에서 베다를 읽고 제사에서 신들을 경배하게 해라!

D06.01(09) bhr̥ṣena marutā stambhau kṣetre nipatataḥ.

강한 바람에 의해 두 기둥이 들판에 쓰러진다.

D06.01(10) yuddhe vīraḥ kṣatriyo 'mitrāṇi hanti.

전투에서 용맹한 전사가 적들을 죽인다.

D06.01(11) vañijako mūr̥khe sevake krudhyati sma.

상인은 어리석은 하인에게 화가 났다.

D06.02 다음 이야기를 한국어로 옮기시오. (mūṣikā-kanyā-kathā 1/2)

D06.02(01) asti śreṣṭho mahāsiddho dvijo 'raṇye vasati sma. gaṅgāyāṃ ca dine dine snānasyārtham eva gacchati sma. tatra bālā mūṣikā kākasya pādābhyāṃ mahāsiddhasya dvijasya hastayor nipatati. mahāsiddho mūṣikāṃ hastayor vṛkṣasya mūle harati punaś ca snānaṃ karoti sma.

옛날 옛적에, 매우 뛰어난 경지에 이른 사제(dvija)가 숲에 살았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강가강으로 갔다. 그곳에서 덜 자란 생쥐가 까마귀의 두 발로부터 경지에 이른 사제의 두 손에 떨어졌다. 경지에 이른 자는 그 쥐를 두 손으로부터 나무 뿌리 위에 옮겨 놓고 다시 목욕을 했다.

D06.02(02) mahāsiddhaś ca grhaṃ gacchati kiṃ tu punaś cintayati. kathaṃ bālāṃ mūṣikāṃ tyajāmi grhaṃ cāgacchāmi sma. cāpala eva bhavāmi. mūṣikā tatra jagadbhyo bibheti.

mamaivāvidyāc cāpalo 'stīti. mamācāryo dine dina upadiśyati smāhiṃsā paramaṃ dānam ahiṃsā paramaṃ tapa iti. kiṃ adya mamāndhatvam iti manyate mahāsiddho dvijaḥ.

그리고 경지에 이른 자는 집으로 갔지만, 다시 생각한다. “어떻게 내가 어린 생쥐를 버리고 집으로 왔단 말인가? 나는 정말 경솔하다. 생쥐가 산 것들(혹은 세상)을 저기에서 무서워하고 있다. 바로 나 자신의(mama-eva) 무지함에서 비롯된 경솔함이 있구나!”라고. “나의 스승은 날마다 ‘불살생은 최고의 베푸는 일이고 불살생은 최고의 고행이다.’라고 가르쳤다. 지금 나의 (앞을 보지 못함→) 어리석음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경지에 이른 사제는 생각했다.

D06.02(03) mahāsiddhaś ca mūṣikāyai punar āgacchati sma. he bāle mūṣike, mā vaseha, mā mriyasva. adya tvāṃ rakṣāmīti vadati sma. mūṣikāṃ ca grhaṃ harati. paścād mama bhāryā kanyāyā vinā bhavati sma. adyaiva ca śreṣṭhāṃ kanyāṃ icchatīti manyate mahāsiddhaḥ. tatkālaṃ tapaso balena mūṣikāṃ kanyāṃ karoti sma. kanyāṃ bhāryāyai dadāti ca vadati ca. āvāṃ kanyāṃ rakṣāvahai priyeṇeti.

그리고 경지에 이른 자는 생쥐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오 어린 생쥐야, 여기에 있지 마라, 죽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쥐를 집으로 데려왔다. 나중에 “나의 부인은 딸이 없었다. 이제는 [내 부인이] 최고로 훌륭한 딸을 원한다.”라고 경지에 이른 자는 생각한다. 그 때에 고행의 힘으로 그가 생쥐를 소녀로 만들었다. 소녀를 부인에게 주고 그리고 말한다. “우리 둘이서 사랑으로 딸을 지킵시다(Ā. 1. 양수 명령형!)”라고.

D06.02(04) atha saṃvatsarebhyaḥ paraṃ tu bhāryā kanyāyā vivāhaṃ cintayati sma. tato mahāsiddhasya bhāryā caiva bhāṣate. asmabhyaṃ kanyāyāḥ śreṣṭhaṃ naraṃ labhasveti. mahāsiddhaḥ kanyāyai grhaṃ tyajati sma. prathamāṃ mahāsiddhaḥ sūryāya gacchati vadati ca. tava śreṣṭho balo 'sti, sūrya. svargasya nrpo mama kanyāyā naro bhavatu iti. kiṃ tu

sūryo mahāsiddham avapaśyati vadati ca. meghā mad balavattarāḥ. yūyaṃ tu meghair mām na paśyatheti.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부인은 딸의 결혼을 고려했다. 그래서 경지에 이른 자의 부인은 말했다. “당신이 우리들(pl.)을 위해 딸의 최상의 남편을 구해달라!”라고. 그래서 경지에 이른 자는 딸을 위하여 집을 떠나 출발했다. 첫 번째로 경지에 이른 자는 태양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은 최상의 힘을 가졌다, 태양이여! 하늘나라의 왕은 내 딸의 남편이 될지어다!”라고. 그러나 태양은 경지에 이른 자를 내려다보고서 말했다. “구름들이 나보다 더 강력하다. 당신들은 구름(들)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